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 보감회, 투자형 보험상품 예상수익률 하향 조정

□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는 최근 발표한 <생명보험(人身保险) 신규 상품 정보공개관리 방법에 관한 시행령>에서 투자형 보험상품에 관한 연간 예상수익률 상한선을 7년 여 만에 하향 조정하기로 함.

o 보감회는 보험회사들이 배당형, 투자연동형, 만능형(변액 및 유니버셜보험에 해당) 등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시 미래 연간 예상수익률을 상, 중, 하 등급으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, 현실성 없는 수익률 고지를 막기 위해 예상수익률 상한선을 2002년부터 법제화해 시행 중임.

o 이번 시행령은 배당형과 투자연동형 상품의 중·하위 예상수익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했으며, 특히 배당형 보험상품의 연간 누적 현금 배당률의 경우 3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함.

투자형 보험상품 연간 예상수익률 개정 전·후 비교

| 상품 종류 | 개정 전(상, 중, 하위) | 개정 후(상, 중, 하위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배당형 상품 | 6%, 5%, 4% | 6%, 4.5%, 3% | 중 0.5%, 하 1% 하향 조정 |
| 투자연동형 상품 | 7%, 5%, 3% | 7%, 4.5%, 1% | 중 0.5%, 하 2% 하향 조정 |
| 만능형 상품 | - | 6%, 4.5%, 예정이율 | 새로 규정 |

자료 :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

□ 보감회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예상수익률을 과대 고지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o 2007년 중국의 한 생명보험 회사가 투자연동형 및 만능형 보험상품 전단지에 고의로 실제보다 큰 예상수익률을 명기해 당시 높은 실적을 거두었으나, 이후 대량 해약사태가 일어나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.

o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보감회의 예상수익률 하향 조치가 실효를 거두게 되면 과대 고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줄어 소비자들이 투자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상품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임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, 성도상보, 9/30)